

이제부터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문화도시계획’, ‘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문화도시정책’, ‘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문화도시법’을 제정한다. 또한 문화도시 서울을 <2030, 문화도시 서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문화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이제부터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문화도시계획(안)’을 제정한다.

이제부터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문화도시 서울 TFT’를 설립하고 ‘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문화도시정책’, ‘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문화도시법’, ‘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문화도시법령’, ‘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문화도시법령령’, ‘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문화도시법령령령’을 제정한다. 또한 문화도시 서울을 <2030, 문화도시 서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문화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문화도시 서울을 <2030, 문화도시 서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문화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시민 및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 계획수립 준비 TFT 구성 운영 (총 11회, '13.8.21~)
- 계획3대 원칙 제시: '시민문화계획, 평생적 문화계획, 문화기반시설 계획'

- 문화도시정책지원위원회 문화장(책방)과 자문위원(7명) 및 문화물류수립준비 실무 TF위원회(2명) 등 참여
-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좋은 계획 작성(서울시장)

- 서울문화계획위원회 계획 (47명, '14.4월~)
- 계획방향: 계획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상행식 계획수립 및 문화권 선언

- 총 66회 라운드테이블 운영하여 약 1천명의 문화전문가 및 시민 등 참여
- 제5차에 걸쳐 문화정책의제발굴 TF 운영하여 문화정책 의제 발굴

기본구상 연구

2013. 8월~

정책속의

2014. 3월

서울문화계획위원회 구성

4월~

전문가 의견 수렴

5월 ~ 10월

2013

2014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2015

2016

2016
6.28

문화계획 발표

시민의견 수렴

- 임시직 주관식형 설문형 시민의견 수렴 실시(2회)
-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문화생활 등에 있어 필요한 의견 제시→ 50개 아이디어 선정

분야별 계획 신규 수립

- 2천년 역사도시서울 기본계획
- 예술인 희망플랜
- 박물관미술관 마스터플랜
- 시민문화권선언

분야별 계획검토

- 전문가 토론회(22명)
- 내·외부 실무TF 운영(10명)
- 이행과제를 실무자금 계획 검토회의(내부 5명) → 10대추진목표, 25개 추진과제, 135개 세부이행과제로 분류

위원회·서울시장 보고

- 서울문화계획위원회 보고(제1~5차)
- 서울시장 보고: 진행과정 정리·기획화 및 계획별 핵심 추진과제 추가 정리, 발표 등

2030, '공공, 문화, 환경, 안전'의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2030,
 '공공, 문화, 환경, 안전'의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공공, 문화, 환경, 안전'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4대 핵심 전략이다. 공공은 도시 서울의 기반이 되고, 문화는 도시 서울의 경쟁력이고, 환경은 도시 서울의 지속가능성이고, 안전은 도시 서울의 생명줄이다. 2030,
 '공공, 문화, 환경, 안전'의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공공, 문화, 환경, 안전'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4대 핵심 전략이다. 공공은 도시 서울의 기반이 되고, 문화는 도시 서울의 경쟁력이고, 환경은 도시 서울의 지속가능성이고, 안전은 도시 서울의 생명줄이다. 2030,
 '공공, 문화, 환경, 안전'의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공공, 문화, 환경, 안전'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4대 핵심 전략이다. 공공은 도시 서울의 기반이 되고, 문화는 도시 서울의 경쟁력이고, 환경은 도시 서울의 지속가능성이고, 안전은 도시 서울의 생명줄이다.

2030, '공공, 문화, 환경, 안전'의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2030,
 '공공, 문화, 환경, 안전'의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공공, 문화, 환경, 안전'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4대 핵심 전략이다. 공공은 도시 서울의 기반이 되고, 문화는 도시 서울의 경쟁력이고, 환경은 도시 서울의 지속가능성이고, 안전은 도시 서울의 생명줄이다. 2030,
 '공공, 문화, 환경, 안전'의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공공, 문화, 환경, 안전'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4대 핵심 전략이다. 공공은 도시 서울의 기반이 되고, 문화는 도시 서울의 경쟁력이고, 환경은 도시 서울의 지속가능성이고, 안전은 도시 서울의 생명줄이다.

2030,
 '공공, 문화, 환경, 안전'의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공공, 문화, 환경, 안전'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4대 핵심 전략이다. 공공은 도시 서울의 기반이 되고, 문화는 도시 서울의 경쟁력이고, 환경은 도시 서울의 지속가능성이고, 안전은 도시 서울의 생명줄이다. 2030,
 '공공, 문화, 환경, 안전'의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공공, 문화, 환경, 안전'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4대 핵심 전략이다. 공공은 도시 서울의 기반이 되고, 문화는 도시 서울의 경쟁력이고, 환경은 도시 서울의 지속가능성이고, 안전은 도시 서울의 생명줄이다.

2030,
 '공공, 문화, 환경, 안전'의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공공, 문화, 환경, 안전'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4대 핵심 전략이다. 공공은 도시 서울의 기반이 되고, 문화는 도시 서울의 경쟁력이고, 환경은 도시 서울의 지속가능성이고, 안전은 도시 서울의 생명줄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